

# 폐교에 들꽃식물원·황토 펜션... '호남의 외도'로



김요한 목사와 부인 김명순 씨가 마을 해바라기밭에서 활짝 웃고 있다. 김씨 부부는 해바라기·국화·상사화 등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도 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 함평군 해보면 김요한 목사 부부

21년간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김요한(65)목사와 부인 김명순(63)씨는 지난 2004년 서울생활을 훌훌 정리하고 인생의 '마지막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김 목사 부부는 아무런 연구도 없던 함평군 해보면 대각리 오두마을로 내려와 폐교 후 광주 모 교회의 수양시설로 사용되다 방치돼 운동장 잡초가 키를 넘기던 옛 해보 초등학교를 인수했다.

김 목사의 '마지막 꿈'은 한국농촌을 발전시켜 세계적인 모델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황무지를 목초지로 탈바꿈시켜 낙농국의 기틀을 마련한 덴마크의 부흥운동가 달가스(1828~1894)가 그의 멘토(mentor)였다.

김 목사는 "농촌은 침체되고 농민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스스로 변화하기가 어려웠다"며 "식물의 시(시), 건축의 기(기) 자도 모르면서, 내가 실패하면 '봐라! 안되잖느냐?' 하는 말이 나올까봐 '나를 비우고' 농촌을 찾는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야겠다 생각하니까 결국은 되더라"며 활짝 웃었다.

김 목사는 5년 내에 '호남의 외도(外島: 경남 거제도에 있는 해상 관광농원)'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첫째는 학교 운동장 잡초를 제거하고 수로를 정비하는 등 기반시설을 다진 뒤 2년째부터 국화와 상사화 등 본격적인 야생화 조경에 들어갔다.

4년이 지난 지금 폐교는 들꽃식물원과 전통 황토 펜션, 죽림(竹林) 육장, 야제식당 등을 갖춘 종합 웰빙농원 '황토와 들꽃세상'으로 변모했다. 함평군에서도 오지로 손꼽히던 마을 역시 농민부로부터 '녹

색농촌체험 마을'로 지정됐고, 마을 곳곳에 너른 해바라기밭이 조성돼 사진동호인들과 관광객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지난 3일 이곳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군요!" 라고 감탄하며 "농촌이 어렵다고 걱정만 하는데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짜내서 훌륭한 마을을 만들어 존경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바라기밭은 김 목사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9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후라노(富良野)시의 경관지구를 시찰한 후

## 21년 서울 목회생활 접고 농촌 발전 일조 결심

## 3만3천여㎡에 해바라기 재배 사진작가 등 북적

## 虛 전대통령 방문 "훌륭한 농촌 만들었다" 감탄

였다. 그곳에서는 허브식물인 라벤더를 심어 경관조성은 물론 향수 원료로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김 목사는 올 봄 마을 주민들과 함께 3만3천여㎡(1만평)에 25만 그루의 해바라기를 심었다. 마을 입구에서 바라보면 마을 주변이 온통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다. 마침 함평에는 해바라기 영농조합이 결성돼 있어 해바라기 씨가 kg당 4천원선에 수매돼 소득도 올리게 됐다. 해바라기씨는 웰빙열풍에 따라 수요가 점차 늘고 있어 앞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착 초기에는 '폐쇄적인' 마을 주민들의 배척이 심해 융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차츰 김 목사의 순수한 '열정'을 확인하며 마을 주민들 역시 마음을 열었다. 앞으로 마을입구에 농산물 공판장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마을에서 재배한 마늘·고추·양파 등을 판매,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 목사는 "흙을 일구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라는 성경 말씀에서 힘을 얻곤 했다"며 "저수지 물이 흘러가며 농토를 적셔주듯, 누군가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먼저 주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홈페이지 www.htflower.com, 문의 061-323-0691)

/송기동기자 song@

/합평=박영진기자 pyj4079@



황토와 들꽃세상 입구.

## 해당 교육청 매각 금액 결정 후 공개 입찰 위락·별장시설 등 활용엔 매입 할 수 없어

## ■ 폐교 매입·임대하려면 농촌 고령화와 이농에 따라 문을

닫는 농촌지역 초등학교 및 분교가 늘고 있다.

개인이 폐교를 매입·임대하려면 먼저 해당 시·군 교육청에 문의해 매각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교육청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평균 가격으로 매각 예정금액을 결정한 후 이를 공개해 최고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게 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용 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수익계약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매목적이나 위락시설, 별장,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 등은 매각이나 임대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남도내에는 현재 233 개소의 초등학교 및 분교가 폐교한 상태이며 이중 53개소(22.7%)가 체육장이나 지자체 주민복지시설, 예술인 작업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의 해당지역 시·군 교육청)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자연 愛 !! 살고싶다**  
**드림기다림의 행복!!**

'담양수북' 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 담양 수북 마을 소개  
- 청정, 맑은 물, 풍부한 자연 환경  
- 전원생활 및 도시수도, 자연산 채소  
- 편리한 교통,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환경  
- 전통문화, 체험마을 등  
■ 담양 수북 마을의 매력  
- 1시간 30분 이내 광주광역시까지  
- 문화관광의 100-1000 프로젝트  
■ 오시는 길  
담양수북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주최 : (주) 코퍼스테이트  
시공 : (주) 자연개발  
www.covestate.com  
문의처 061-251-4000 / 061-383-2346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산양부오와 당신의 모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1. 납골당 관리의 중요성: 납골당은 선조의 영혼을 모신 곳으로, 청결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관리와 예우는 조상에 대한 효도이자 후손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2.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의 장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편리한 교통과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골당 형태를 제공하고 있어 고객의 취향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3. 문의 및 상담: 납골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문의처: 061-251-4000 / 061-383-2346